

# 40년 전 폐쇄 군산 미군 불법 매립 송유관 드러났다

### 미성동 옥구저수지 인근 지하 80cm 깊이에 묻힌 지름 50mm 강관 발견 군산시·국방부, 굴착조사로 확인...전수조사 후 철거·복구작업 진행

40년 전 군산에 주둔한 주한미군이 불법 매설해 쓰다가 폐쇄한 송유관이 발견됐다. 1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주한미군이 불법 매설해 쓰다가 폐쇄한 송유관을 굴착작업을 통해 찾아냈다.

송유관은 미성동 옥구저수지 인근에 지하 80cm 깊이에 묻혀 있었다. 지름이 50mm 내외의 강관 재질이었다.

군산시와 국방부는 그동안 군산내항에서 미 공군 군산비행장 사이에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 주한미군 송유관을 찾기 위해 굴착작업을 해왔다. 이 송유관은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1940~1950년대에 설치됐으며, 1980년

해당동 저장고 폭발사고 후 폐쇄됐다. 그러나 정확한 매설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일부 지하 송유관을 철거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는 불법 매립된 송유관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국방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발굴된 송유관 인근 토양에 대해 오염 여부를 조사한 뒤 정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송유관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전체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뒤 철거와 복구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군산시 미성동 옥구저수지 인근 지하 80cm 깊이에 묻혀 방치된 미군 송유관.

## 총선 라운지

### “10년 묵은 지역현안 해결” 윤준병 민주당 정읍·고창 후보 충훈탑 잇단 참배 출정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는 1일 정읍시와 고창군에 있는 충훈탑을 잇달아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다.

윤 후보는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 10년 묵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정읍과 고창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돈이 되는 농어축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관광시스템을 만들어 유동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부창대교 건설, 한빛원전 안전성 강화, 내장저수지 국립공원구역 해제,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의 내실화 등 10년 묵은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 어르신·여성·다문화가정·장애인·청년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예방·의향으로서 문화·예술·교육·체육을 진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황토배기유통

### 전문물류기업 거듭난다

#### 생산·유통 통합마케팅 확대

고창군이 출자한 (주)고창황토배기유통은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력을 통해 지역농산물 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통합 출하시스템을 구축, 그동안 중소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출하했던 농산물을 통합마케팅을 통해 유통물량을 확대한다.

공동 사업을 통해 유통 시설장비의 가동률을 높여 투자비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또 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견고추장터를 개설, 고추 생산능력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이끌어 농가소득을 높여갈 계획이다.

조성된 장터 공간을 활용한 중·소규모 농산물 관련 행사도 추진한다.

앞서 고창군은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총 13개 사업, 24억3500만원을 지원했다.

농산물 유통 규모화로 거래 교섭력을 강화하는 등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였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생산·유통의 통합마케팅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며 “고창황토배기유통이 농산물 유통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독자경영으로 전환, 전문 농산물유통회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순창 복흥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 6억 투입...조만간 업체 선정

#### 다목적 교실·급식실 등 갖춰

#### 취약계층 아동 돌봄 환경 조성

순창군이 농어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공사’를 본격화한다.

1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토목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조만간 건설업체가 결정되면 곧바로 토목공사에 착수한다. 건축 공사는 전 세계 어린이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

된 국제기구인 ‘세이프 더 칠드런’이 직접 추진한다.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3억5000만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군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6억원의 사업비로 건립된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지역아동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200㎡ 규모이며, 다목적실·교실·급식실·상담실 등이 갖춰진다.

센터가 들어서는 복흥면은 문화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지원시설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가 건립되면 지역 취약계층 아동과 일반 아동들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보장하게 된다.

또 보육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해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아동센터 인근에 청소년문화의 집과 노인복지센터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한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 면지역의 복지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건립이 농어촌 아동들에게 건강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맡겨뒀을 수 있



순창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3D 조감도

는 아동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세이프 더 칠드런 서부지부와 상호 협력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윤준병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정읍시, 수질 오염 주범

###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정읍시는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청정 지하수 보전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방치된 관정) 찾기 운동’을 연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하수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과정에서 수질불량, 수량부족 등 여러 원인으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의미하며, 지하수 오염의 주요인으로 우려되는 시설물이다.

정읍시는 “안전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방치공의 신고·폐공처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연중 방치공 찾기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견한 방치공은 지하수 방치공 상실신고센터인 시청 건설과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방치공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급수정과



정읍시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연중 실시한다.

관측정으로 재활용하거나 원상복구사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국공립어린이집 3곳 새로 문열어

### 맞벌이 부부 긴급돌봄 시작

남원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3곳을 개원했다. 1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내 무상 임대 1곳과 민간어린이집 2곳을 전환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총 3곳의 문을 새로 열었다.

이에 따라 남원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4곳, 239명으로 늘어나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결정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휴원하며, 개원식·오리엔테이션 등 별도 행사는 모두 취소했다.

남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이 장기간 휴원함에 따라 가정양육이 힘든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시작했다.

돌봄 아동과 보육교직원들은 발열상태를 수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새로 개원한 도암어린이집.

체크하고, 어린이집 매일 소독, 통학차량 방역 등 코로나 예방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

**클래식 스타일** Classic |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 |